



## 봄비에 젖은 가로수길을 걷는 女心

연둣빛으로 물든 진안군 부귀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27일 새벽부터 내린 봄비에 촉촉이 젖어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이 길은 계절마다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관광과 사진촬영, 드라이브 코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 여성이 이 가로수길을 걷고 있다.

## 국민의당, 전남출신 박지원 의원 원내대표 서울의 김성식 최고위원 정책위원장 추대

# 전북 정치, 여전히 '뒷방 신세'

원내대표 탈락 유성엽 "짜여진 각본따라 진행" 비판  
도내 국민의당 당선자들 중앙당 진입 쉽지 않을 듯  
상임위원장도 쉽지 않아 지역 정치력 쇠퇴 가속화 시각도

전북 정치가 여전히 '뒷방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7일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김성식 최고위원을 정책위원장으로 합의를 추대했다. 박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원내대표만 세 번 하는 것보다는 후배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는게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요청으로 수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내 정치권은 박지원 의원이 당초 대권과 당권에 무게를 둔 입장인지라 의외라는 반응이다. 전북지역 출신 유성엽 의원에 대한 원내대표 기대는 무너졌다. 정치변방으로 전락한 전북정치의 굴욕을 또 다

시 보여줬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유성엽 의원도 이를 인식한 듯 27일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토론회에서 "최근 당의 흐름을 보니 안타깝다. 전대 연거름이 그렇고 원내대표 추대론이 그렇다"며 "일련의 일들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원내대표 희망자가 있으면 경선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지원 추대론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지역정가는 이번 유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 실패를 놓고 앞으로는 국민의

당 중앙당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 인식의 팽배하다. 많은 지지를 보낸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도내 인사 배제를 거치면서 절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동영, 조배숙 등 4선 이상의 중진 당선인을 바탕으로한 당내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국회의 꽃이라는 상임위원장도 쉽지 않아 전북 정치력 쇠퇴가 가속화 될 것란 시각도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겸임 상임위원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를 포함해 16곳이고, 예결특위와 윤리특위까지 포함하면 모두 18 곳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7명의 당선인을 내면서 세를 형성했지만 국회에서 중책을 맡을지도 미지수다. 상임위원장은 3선이상이면 차지할

수 있고 국민의당 소속 전북출신은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당선인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당선자 현황을 보면 전체 300명 당선인 가운데 4선 이상이 50명, 3선 이상이 100명에 달한다. 상임위원장 한자리도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여야 중앙당 관계자들이 호남을 방문해도 광주, 전남을 먼저 찾았다. 이에 전북은 언제까지 호남에서도 변방이어야 하는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내부뿐 아니라 중앙정치권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광명 기자

▶ 매일 INDEX  
3면 국민의당 김중희 당선인에게 묻다

### 社告

#### 제3회 전국 품바 명인전

품바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요 해학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삶의 회로예락, 정치·사회문제 등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사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전국의 품바 명인들을 초청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제3회 전국 품바 명인전을 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 2016년 5월 13일(금) 오후 2시
- 장소 : 전주 풍남문광장 특설무대
- 주최 :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문의처 :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 5~6월 한우값 크게 오를 듯

사육두수 감소가 주원인  
소비자들, 수입산에 눈돌려  
쇠고기 수입량 늘어날 듯

한우 도매가격 강세로 육육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1~22일 평균 육육 도매가격은 1kg당 1만649원으로 전년보다 2.6%, 평년대비 26.5% 상승했다. 5월에도 육육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우와 육육 사육 마릿수는 2012년 320만마리에 육박하던 것이 2015년 268만마리로 감소했고 2016년에는 259만6000마리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우값 강세로 인해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수입산 쇠고기로 눈을 돌리면서 수입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3월 쇠고기 수입량은 7만8000톤으로 전년 동기간대비 25.2% 증가했다. 5~6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주 기자

## 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 제4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주최,주관:부안농악보존회,전주매일신문 ※후원:농림축산식품부,전라북도,부안군,부안군의회



※ 일시: 2016.5.8.(일) 09:00~15:00 ※ 장소: 부안군청 광장  
문의: 063)584-4182 / Fax 063)584-3250 / 010-2425-4182

제4회 부안 마실 축제  
5월 6일(금) ~ 5월 8일(일)